

“소통·화합 강화...고향 발전 앞장서겠다”

●이정배 지형건설회장 재광 완도군향우회장 취임

재광향우 등 300여명 참석...화합 대신 나눔쌀 기부 지역 우수인재 양성...금당초중고에 장학증서 전달

이정배(사진) 지형건설회장 재광 완도군향우회장에 취임했다. 재광 완도군향우회는 7일 오전 광주 서구 홀리데이호텔에서 제21대·22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 취임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신우철 완도군수, 김양훈 완도군의회 의장, 천한옥 재광 완도군 12개 읍면협의회장, 문인 광주 북구청장, 서용규 광주시의회 부의장, 임선숙 변호사를 비롯해 재광 완도군 향우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경과보고, 김용태 회장 이임사, 이정배 회장 취임사, 축사, 이임회장에 대한 공로패 수여, 신입 집행부 소개, 장학금 전

달 등이 진행됐다.

이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소통과 화합을 강조했다.

그는 “회원 명부를 재작성하고 정기적인 모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소통과 화합을 강화하겠다”며 “향우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봉사과 기부활동을 추진하는 등 고향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재 양성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이 회장은 “미래는 젊은 세대의 참여에 달린 만큼 젊은이들이 향우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멘토링 기회를 제공하고 장학사업을 추진해 그들이 고향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



고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정은술 기자

강기정 시장은 축사를 통해 “김용태 회장의 노고와 헌신을 치하하고, 이정배 회장을 비롯한 신입 집행부의 취임을 축하한다”면서 “12만명에 이르는 재광 완도군향우들이 완도와 광주의 가교 역할을 한 데 대한 노고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의 백년대계를 내다 보며 진행 중인 주요사업을 소개한 뒤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광 완도군향우회가 고향사랑의 마음으로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재광 완도군향우회는 이날 이·취임식에 축하 화환 대신 고향사랑 나눔 쌀을 받아 완도군에 기부했으며,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금당초중고에 총 2천만원의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한편 완도 금당면 출신인 이정배 회장은 지난 2000년 건설업을 시작한 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전문업체인 지형건설사를 설립, 지난해 시공능력 평가에서 1천655억8천만원으로 광주지역 1위, 전국 10위권의 전문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정은술 기자

동신대 ‘혁신융합캠퍼스’ 국토부장관 표창



동신대학교는 6일 “혁신융합캠퍼스 사업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동신대는 지난 2022년 국토교통부, 나주시 등의 지원을 받아 빛가람혁신도시 내에 혁신

융합캠퍼스를 구축하고 지식 협력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며 혁신도시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해 왔다.

컴퓨터학과 정보보안학과 등 6개 학과를 혁신융합캠퍼스로 이전에 실무역량을 집중 교육하고, 오픈랩, 리빙랩, 취·창업 프로그램, 동신엑스포 등을 통해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에너지 신산업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지역발전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혁신융합캠퍼스 사업단은 교수들이 지역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나서고, 지역사회 문제해결 플랫폼을 구축하며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했다.

이동휘 동신대 혁신융합캠퍼스사업단장은 “우리나라 에너지 신산업의 중심인 빛가람혁신도시에 혁신융합캠퍼스를 구축하고 인재 양성과 지식 협력력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공유대학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대기자



광주경찰청 안행순찰대, 눈길 사고 예방 순찰

광주경찰청 교통안전과는 7일 오전 눈길 교통사고 예방차 광주시내 일원 순찰을 강화했다. 특히 광주청 안행순찰대는 예방 순찰에만 그치지 않고 사고현장에서 신속한 구조 작업과 시설 지원을 펼쳐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윤시연 안행순찰대 팀장은 “폭설같은 기상악화 상황에서는 한순간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운전자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재영 기자



조성애 창평전통쌀엿 대표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쌀조청’ 전통 제조방법 보존...전남 17명으로 전국 최다

조성애(사진 오른쪽) 담양 창평전통쌀엿영농조합법인 대표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쌀조청 제조기술의 전통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2024년 대한민국식품명인(쌀조청)으로 신규 지정됐다. 전남지역 지정 명인은 17명으로 늘어 전국 최다를 유지하고 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조성애 대표는 2019년 순천 김순옥 명인 지정 이후 전남지역에서 4년 만에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식품명인은 각 시·도에서 총 27명의 후보가 추천됐다. 서류·현장 심사를 통해 전통성과 계승·발전 필요성, 산업성 등 6개 항목의 적합성 검토를 거쳐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심

의회 평가, 심의를 통해 최종 2명이 이름을 올렸다.

조 명인은 고문헌 ‘규합총서’에 기록된 직화·농축법을 재현해 아궁이와 가마솥을 활용한 전통 방식으로 조청의 원형에 가까운 맛과 품질을 구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옛기름으로 당화시킨 당화물을 졸여 조청을 만드는 과정에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한때 기계식 제조 방식을 시도했으나, 전통 맛을 내기 어려운 한계를 경험하며 다시 아궁이를 개량하는 등 전통의 맛을 살리는 데 힘쓰고 있다.

조 명인의 쌀조청은 담양 창평면에서 생산한

유기농쌀과 곶보리만 사용해 제조하고 시조모에서 시부모, 본인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 가업 형태로 전수되고 있다.

20년 이상 쌀조청 제조에 전념한 조 명인은 배우자와 함께 ‘창평전통쌀엿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며 쌀조청 단일품목의 시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떡과 엿 등 다양한 전통식품을 병행 판매하는 등 전통음식 산업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2025남도 국제미식산업박람회, 남도직거래장터 등 각종 전시박람회에서 명인전시관을 별도 운영해 마케팅을 지원하고 일반인에게는 명인식품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광주 유덕초 학생회, 백혈병소아암 성금 기탁

광주 유덕초등학교 학생들이 바자회를 열어 조성한 성금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광주전남지회(이사장 최영준·사진 가운데)에 전달했다.

7일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광주전남지회에 따르면 유덕초등학교 학생회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전 교내에서 바자회를 개최해 56만원을 마련했으며, 전교 학생회를 통해 백혈병소아암 어린이들을 돕는데 기부하기로 결의해 최근 성금을 기탁했다.

박다한(6학년·사진 왼쪽) 2학기 학생회장은 “힘들게 투병하는 친구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예진(6학년·사진 오른쪽) 1학기 학생회장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백혈병소아암을 앓는 또래 친구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광수 교사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기부를 위해 바자회를 열었고, 자율적으로 기부처를 결정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자랑스러웠고 대견했다”고 밝혔다. /가수희 기자



구례군 공무원, 희망2025나눔캠페인 성금 전달

구례군은 7일 “김순호 군수와 공무원들이 희망2025나눔캠페인에 동참, 성금 2천519만1천210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성금은 지난달 12월1~20일 군 산하 직원 612명의 자율적 참여로 조성됐으며,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순호 군수는 “희망2025나눔캠페인에 참여

해 준 직원들에 감사하다”며 “군민들도 서로 온기를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은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구례를 가치있게’라는 주제 아래 오는 31일까지 ‘희망2025나눔캠페인’을 전개한다. 캠페인 참여는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061-902-6800)로 문의하거나 방송사, 군청,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할 수 있다. /구례=임종길 기자

박미정 광주시의원 ‘대한민국 33인 인물대상’ 수상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이 최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33인 인물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 발전공헌’ 부문을 수상했다.

7일 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재)기부천사를 설립 등이 주축하고 (사)국민노동정책교육개발원 등이 공동 주관한 ‘대한민국 33인 인물대상’은 국제, 정치,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인물, 단체를 발굴하고 업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됐다.

박 의원은 지역에서 개발된 정책이 국가단위



핵심 정책으로 확대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성과를 창출한 점 등을 높이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 의원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혁신 우수 조례나 정책이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전파돼야 한다”면서 “지방 정치 성숙과 지역 민생 안정을 위해 늘 시민과 소통하며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진명숙 여수시의원 ‘지방자치 의정정책대상’ 최우수

여수시의회 진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예산결산특별위원장·사진)이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관한 ‘2024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회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7일 여수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번 수상은 진 의원이 여수시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와 제안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은 결과다.

진 의원은 그동안 도시 발전, 환경 보호, 복지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제시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해왔다.

특히 제2대 여수시의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지방하천 활용 생태·문화 발굴 연구회’ 대표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의 환경과 문



화를 활용한 발전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진명숙 의원은 “여수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여수시의 역사적 가치를 되살리며 미래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며 “이상은 시민들이 보내준 신뢰와 지지 덕분에 가능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여수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진선 기자

인사

광주 서구 <4급 승진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안전도시국장 박윤철 ▲사무국장 정계순

<6급 승진 >▲교통지도과장 직무대리 배석 ▲상무1동장 ▲고진희 ▲주민자치과장 ▲신진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상무2동장 ▲홍승립 ▲공원녹지과장 ▲이정경 ▲치매안심센터장 ▲안해경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정형권 ▲토지정보과장 ▲정재철

<4급 전보 >▲통합돌봄국장 정창욱 ▲생활정보국장 조진욱

<6급 전보 >▲체육관광과장 전준계 ▲양성아 동북지과장 감미숙 ▲교통행정과장 박희남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세무1과장 조은숙 ▲세무2과장 김동관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감염병관리과장 오영순 ▲양동장 류선석 ▲광천동장 허성자 ▲유덕동장 구계선 ▲화정동장 이흥규 ▲화정2동장 이형숙 ▲금호동장 손숙자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장애인회복복지과장 윤종성 ▲복지급여과장 윤순애 ▲치평동장 김성희 ▲화정3동장 양동식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건설과장 이승규

결혼

▲신승현·임미영씨 아들 재광군, 이신우·서주희씨 딸 지선양=11일(토) 낮 12시20분 더컨벤션 송파문정점 12층 그랜드볼룸,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155(문정동 651-8), 010-2610-0005.

부음

▲고강인(KIA 타이거즈 마케팅팀 프로)·황진이 선·유우씨 별세=발인 8일(수) 오전 광주 구린장례문화원(062-250-4455).